

한국 야구 팬들이 기대하는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한화 이글스)과 'KK' 김광현(SSG 랜더스)의 '꿈의 대결'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까. 류현진과 김광현은 지난 20일 각기 다른 구장에서 선발 등판했다. 류현진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벌어진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2피안타 3탈삼진 2사사구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치고 승리를 따냈다. 같은 시각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김광현은 6이닝 동안 9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4피안타 1볼넷 1실점으로 래투를 선보이고도 승리와의 연을 맺지 못했다.



## 이뤄지지 않았던 류현진vs김광현 '꿈의 대결'... 성사될까

지난 17일 후반기가 시작된 가운데 우천 등으로 류현진, 김광현의 등판 일정이 겹쳤다. 이 사실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한화와 SSG의 맞대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화와 SSG는 오는 25~2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3연전을 펼친다. 선발 로테이션이 그대로 돌아간다면 류현진과 김광현은 26일 경기에 나란히 등판해 선발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한국 최고의 좌완 투수로 활약하며 한국 야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2006년 한화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데뷔 첫 해 신인왕과 최우수선수(MVP)를 동시에 석권하며 전

우천 등 변수 없으면 26일 대전서 맞대결 가능성  
KBO리그·MLB에서 선발 맞대결 펼친 적 없어  
설의 등장을 알렸고, 올해까지 통산 234경기에서 114승 64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93의 성적을 거뒀다. 2006~2012년 눈부신 활약을 선보여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은 류현진은 2012시즌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추진했고, 6년 3600만 달러에 계약하며 미국으로 건너갔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다저스,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거치며 11시즌 동안 통산 186경기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7의 성적을 냈다. 2023시즌을

그는 2020~2021년 세인트루이스에서 뛰며 통산 35경기에 등판, 10승 7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2.97의 성적을 냈다. 세인트루이스와 계약이 만료된 후 거취를 고민하던 김광현은 2022시즌을 앞두고 친정팀 SSG와 4년, 151억원에 계약했다. 적잖은 세월을 같은 리그에서 뛰었지만, 류현진과 김광현이 국내 리그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친 적은 한 번도 없다. 2010년 7월24일 열린 올스타전과 2011년 3월15일 대전구장에서 벌어진 시범경기에서 맞붙은 것이 전부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2010년 5월23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한화와 SK의 정규시즌 경기에 나란히 선발 투수로 예고됐지만,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맞대결이 무산됐다. 둘이 함께 MLB에서 뛰 2020~2021년에도 맞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다시 함께 KBO리그 무대를 누비게 됐지만, 한 경기에서 선발로 만나는 일은 없었다. 올해 전반기 막판인 6월 27~29일 한화

와 SSG의 맞대결 당시 둘의 등판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있었지만, 김광현이 한 차례 쉬어가면서 맞대결이 불발됐다. 그런데 후반기 시작 후 또 둘의 등판 일정이 겹치면서 다시 한 번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경문 한화 감독과 이승용 SSG 감독은 모두 다음주 주말 선발 로테이션 일정을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수는 바다. 한화는 22~24일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3연전을 펼치는데 22일 비 예보가 있다. SSG는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 경기에 나서는데 아직 비 예보는 없다. 결국 둘의 맞대결 성사 여부는 하늘만이 아는 셈이다. 25일 예고될 26일 대전 한화-SSG전 선발 투수에 야구 팬들의 시선이 모인다. /뉴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방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흥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 강진군, 제36회 대통령기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 개최

전국 36개 팀, 1,500여 명 참가, '반값여행' 연계 스포츠관광 효과 기대

전국 럭비 동호인과 유망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36회 대통령기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가 오는 21일 월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9일간 강진군 하멜 구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5팀), 대학부(3팀), 18세 이하부(15팀), 15세 이하부(13팀) 등 총 36개 팀, 약 1,5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가해 전국 최고의 팀을 가리는 치열한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럭비 전용 천연잔디구장을 갖춘 강진은 매년 전국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럭비 관계자들이 강진을 찾을 것으로 예상,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효과가 약 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이 경기 외에도 강진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특산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강진 반값 여행' 프로그램을 연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은 "이번 대회는 강진의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럭비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전국 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강진이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2025광주세계양궁대회 입장권 사전 판매

22일부터 종일·오전·오후권...사전 예매 20% 할인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입장권이 사전 판매된다. 광주세계양궁대회조직위원회는 22일부터 세계양궁대회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장권은 종일권, 오전권, 오후권 등으로 구분됐으며 관람객은 일정과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결승경기 기준으로 종일권은 2만원, 오전권 1만원, 오후권 1만6000원이다. 사전 판매 기간에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

공된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전석 무료 예매제로 운영되며 전자입장권 시스템이 도입돼 관람객은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은 인터파크 티켓과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영어 기반 예매 플랫폼도 별도 운영된다.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장애인양궁대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 /김명수 기자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2025. 9. 5.-12.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2025. 9. 22.-28.